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광복70주년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동	00 부탁해요 엄마(재)	10 좋은 아침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00 주말드라마 (내 딸 금수월)(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인간극장 스페셜 (안데스의 사랑채 부부 1~3부)	0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생환단 올드보이가 간다
2	00 2015 전국 대학 농구 (한국대 vs 동국대)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재)	00 남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견 유레카
3	00 직언직설	55 든든생활제2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기	30 영코르 MBC 다큐 스페셜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하늘 길을 잡아라 공정 전쟁(재)	00 TV 유치원 30 별별가족 35 동물의 세계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패셜 30 우리끼리 탐구 생활
5	50 박정호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55 500회 기획 위기탈출 올스타 넘버원(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갈매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다 할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비타민	10 시사토크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명경만리 55 송타	00 수목 드라마 (여섯달)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11	0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타임 40 100세 시대 이제는 건강복지다	10 해피 투게더	15 차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 리그 다이아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4:50 뽀빠에 친구	18:4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3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8:45 스크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4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갤럭시 프로젝트
07:00 지파이트스(재)	11:10 다크 오늘	15:45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사선에서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똥뽀이(재)	20:40 다크 오늘
08:00 당동명 유치원 1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45 당동명 유치원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아이라일 재발견)
08:10 통통가족	13:05 역사채널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 (골목기행2)
08:15 그림을 그려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사이틴 지구인 자력평가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30 두다디공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중 슈퍼왕스	23:35 글로벌 가족정적기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큰	18:2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2	
08:45 방귀대장 똥뽀이	14:30 캐니발	18:25 내 친구 아저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파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II-읽파개념>
00:50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화통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02:30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03:20 <수학II>	15:40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II>	16:30 <수학II>
05:00 뉴탐스런 <화학 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지구과학 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세계지리>	19:20 <세계사>
07:30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이문주의 수학II>	<화통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듣기>	21:50 <문학 B형>
11:00 <수학 I B>	22:30 박범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4:30 <역사 1-2>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15:10 어휘랑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점왕 <과학 3-2>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강좌	15:50 <과학 4-2>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6:20 <과학 5-2>
09:10 TV중학 <국어II(1)>	16:50 <과학 6-2>
09:50 <영어>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10:30 <도덕 2>	<진과목 6-1>
11:10 <국어(3)>	17:50 다크 오늘
11:50 <영어 2>	18:00 TV중학 <수학3(해)>
12:30 EBS 특강	18:40 <영어 3>
13:00 대일리 서술형 수학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3:10 중학 중·기 시험대비 문제풀이	20:00 EBS 인문학특강
<사회 1-2>	20:50 EBS 기획시리즈
<사회 2-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7일(음 8월 5일 丙申)

子	48년생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60년생 객관적인 자세가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72년생 기급적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 판단하는 것이 순조롭다. 84년생 상호존진을 위한 아픔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5, 06	午	42년생 상호 협조가 이뤄지리라. 54년생 확실하게 지속하는 게 능률적이다. 66년생 실재로 효력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78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 명심하다. 행운의 숫자 : 12, 46
丑	49년생 결만 보고 평가하면 실수하게 된다. 61년생 믿고 의지했던 것이 불시에 사라지는 구도다. 73년생 상호 관대함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숙명이다. 85년생 펼쳐 버리지 못하면 시간낭비다. 행운의 숫자 : 23, 57	未	43년생 공역이 왔던 일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55년생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67년생 완전하지 않던 오히려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79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7, 13
寅	38년생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50년생 이렇 수도 없고 저렇 수도 없을 것이다. 62년생 실재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74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86년생 성과를 거두리라. 행운의 숫자 : 37, 82	申	44년생 발전을 위한 아픔은 감내해야 한다. 56년생 이로나나 예단이 아니라 현실에 따르는 게 낫다. 68년생 재성비에 확실한 신경을 쓰자. 80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89
卯	39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51년생 호기와 위험스러움은 공존하느니라. 63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게 더 낫다. 75년생 조연을 참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58, 38	酉	45년생 폭 넓은 시야가 발전 단계로 이끈다. 57년생 모순을 극복하느니라 관건이 될 것이다. 69년생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81년생 공들인 일이 물거품이 돼 고개잡을 느끼겠다. 행운의 숫자 : 55, 80
辰	40년생 활용가치와 실익 계산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2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4년생 움직임이 약하지만 실속은 있다. 76년생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2, 77	戌	46년생 관리는 평소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8년생 현실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다. 70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됐음을 명심하라. 82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64, 92
巳	41년생 굽고 맺음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후환을 부를 것이다. 53년생 확실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한계상황에 봉착한다. 65년생 평소어 쌓아두었던 것이 힘이 된다. 77년생 예정보다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35, 01	亥	47년생 먼 곳으로부터 오는 희소식을 접하리라. 59년생 추진하다 보면 해몽은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71년생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필요가 있다. 83년생 충동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3,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데뷔 10년, 배우의 길 후회한 적 없죠”

여진구, 영화 ‘서부전선’ 코믹연기 도전

“연기 시작한 일을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어요. 학교생활도 출석 빼고는 친구들이랑 비교해 크게 부족한 점이 없어요. 10대에 대한 미련은 남죠. 친구들과 10대에 쌓을 수 있는 추억이 올해 마지막이니까요.”

2005년 영화 ‘새드부비’로 데뷔한 ‘귀여운 꼬마’는 올해로 10년차 배우가 됐다. 막연히 TV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에 도전한 일을 이제는 평생 업으로 삼기로 했다.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20살 약관(弱冠)에 접어드는 배우 여진구(18·사진)를 만났다.

“저는 진짜 행운아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의 응원과 관심도 너무 감사드릴 일이고요. 제 포레 친구들 보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춘기는 어땠을까.

“사춘기는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했어요. 변성기 때 굵게 변한 제 목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잘 안하려고 했어요. (웃음)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했죠. 생각지도 못한 칭찬을 받으면서 지금은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여겨요. 우리 가족 남자들 목소리가 다 굵고 울리는데, 그중에서도 제 목소리는 더욱 그런 편이예요.”

여진구는 현재 연극영화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 진학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 연극영화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입시는 학원 다니면서 준비 중인데, 수시 모집에 응시하려고요. 정시는 큰일 나요. (웃음) 어렸을 때부터 대학 문화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캠퍼스 커플도 해보고 싶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은 2013년 개봉한 ‘화이 : 괴물을 삼킨 아이’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영화에서 여진구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자신을 키운 ‘아버지들’에게 복수하는 소년을 연기했다.

어둠과 잔인한 부분이 적지 않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이 영화를 여진구는 아직 보지 못했다. 당시 만 열여섯 살 소년 역 연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역할이었지만, 여진구의 연기에 상찬이 쏟아졌다.

“물레 불 수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돌려보고 나서 당당하게 영화를 봤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두운 역할을 맡은 것



은 ‘화이’ 때가 처음이라 신경을 많이 썼죠.”

여진구는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서부전선’에서 어린 북한군 영관을 연기하며 설경구와 ‘넵 앤 넵’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설경구 선배님은 이미 말은 배역인 남복이가 돼 있었어요. ‘보험’처럼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부전선’도 ‘화이’ 때처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 반응) 기대가 돼요. 추석이 맞춰 개봉하는 영화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흥행 성적 같은 것에 대해 조금쯤은 느끼지는 않아요. 제게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거든요.”

‘쎄 언니’ 제시가 돌아왔다

두 번째 솔로 곡 발표... ‘쉬운 가사로 중독성 있죠’



여성 래퍼 제시(본명 호현주·27·사진)가 싱글 ‘쎄 언니’(SSEUNNI)를 발표했다. ‘쎄 언니’는 제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나이고 싶어’에 이은 두 번째 솔로 곡이다. 제시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스에서 싱글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6년 만에 쇼케이스 무대에 섰다는 제시는 “오랜만에 노래로 나오니까 긴장도 있지만 기분은 좋다”며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하면서 쎄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이번 음반 콘셉트도 그렇게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쎄 언니’는 러키제이의 ‘들리니’를 작곡한 페이머스브로(FamousBro)와 바울이 작곡한 힙합곡으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이중적 느낌을 담았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쉬운 가사가 인상적인 곡으로, 제시가 작사에 참여해 강한 여자에게도 귀엽고 여성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시는 “외모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며 “사실 전 마음이 여리다. 눈물도 많고 상처도 잘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여성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제시는 여성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해 독특한 성격과 출중한 랩 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시는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쎄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그 이미지에 따라 생긴 유행어를 이번 노래에 담았다”며 “‘컴피티션’(competition), ‘나들이 댄드 날 판단해’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랩이 어색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번 곡에서는 재미있고 쉬운 단어를 많이 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로그램 동료 중) 옥지담과 타이미 두 사람만 응원해 줬는데 섭섭하지 않다”며 “이번 곡은 ‘언프리티 랩스타’의 연장이 아니고 포함되는 정도”라고 했다.

제시는 최근 MBC ‘진짜 사나이-여군특집3’에 출연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진짜 사나이’에 대해 “술처럼 힘들었다.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받은 훈련 중 화생방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음악사이트 ‘지니’ 후불형 요금 상품 판매

월 기본료 100원, 한 곡 감상시 10원 추가

온라인 음악사이트 ‘지니’를 운영하는 KT뮤직이 디지털 음악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목표로 후불형 요금상품 ‘알뜰 음악감상’을 시작했다.

KT뮤직은 16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후불 음악감상 요금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디지털 음악서비스는 10년째 선불 정액 요금으로 판매되고 있다. KT뮤직도 6000원을 내면 음원을 무제한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정액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알뜰 음악감상’은 월 기본료 100원에 한 곡 감상 시 10원씩

요금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한 곡 감상 가격은 통상 12원이지만 지니 고객들은 2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KT뮤직의 설명이다.

KT뮤직은 고객이 음악이용 횟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 화면에 이를 안내하는 표시 기능과 음악감상 사용횟수를 100회마다 알려주는 팝업 기능도 추가했다. 또 6초까지는 ‘미리 듣기’로 무료 제공한다.

KT뮤직은 최근 실시한 고객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시하며 유료 음악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 46%가 “이용료 대비 사용량이 적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휴뉴스